

$$9 = 3 + 3 + 3$$

(채널코퍼레이션 + 당근 + 토스페이먼츠)
(네이버웹툰 + 쿠팡 + 우형)
(토스증권 + 매스프레소 + 센드버드)

WISSEMOWI



ROENISS MOON, 2021/11

TARGET AUDIENCE

- 어디서 좋은 회사들의 정보를 구하는지 알고 싶은 사람
- 경력직 면접에선 대체 뭘 물어보는지 궁금한 사람
- 아직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 사람
- 연봉협상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해보고 싶은 사람
- 딱히 이직과 아무 관련도 없는 상태지만 일단 취업에 관한 얘기라면 조금이라도 더 들어두고 싶은 사람

HOW THE MOVE STARTED

WHY TO GO, WHERE TO GO

외부 자극이 있었다면, 그 주체와 본인의 환경을 비교하는 것부터.

왜 자꾸 '딴 생각'이 드는지는 본인의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밖에.

돈? 동료? 업무? 평판? 어느 주변인도 감히 추측할 수 없는 문제.

이유에 대해 생각이 정리되면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면접을 진행하면서 생각이 더 정제되기도.

WHY TO GO, WHERE TO GO

네카라쿠배당토직야는 그렇다치고, 나머지는?

"내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흙 속의 진주같은 회사가 있다면? 단지 존재하는지 몰라서 지원을 못하게 된다면? 그걸 나중에야 알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공포.

내게 익숙한 방법을 포함하여, 최대한 많은 루트를 통해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

WHY TO GO, WHERE TO GO

LinkedIn: '구직중' 표시, 모든 1촌 요청 수락, 콜드 메일에 응답, 무지성 1촌 요청.

Blind: 'IT 라운지' 및 'IT 엔지니어' 눈팅, 때로는 질문.

Humans: 각 회사의 친구, 지인. 각 회사에 친구를 둔 친구에게 부탁해 셋이 점심.
대화를 통해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소문도 확인.

Company's: 회사 소개, 기술 블로그, 채용 공고, 유튜브.

네이버웹툰

구글대만/구글재팬

우아한형제들 (배민)

토스증권/토스페이먼츠

매스프레소

당근마켓

SO,

센드버드

스포카

마이리얼트립

라인플러스

쿠팡

트릿지

데브시스터즈

채널코퍼레이션 (채널톡)

HOW THE MOVE PROCEEDED

RESUME

경력직에겐 자소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거의.

질문은 분명 이력서에서 나온다.

Jira 등을 통해 모든 태스크를 가져와 분류하는 것부터 시작.

시간순이 아니라, 중요도 내지는 기여도 순으로 배치.

APPLICATION

가급적 지인 추천, 없으면 리쿠르터, 없으면 공식 루트.

여유가 있다면 더 가고싶은 회사를 뒤쪽에 배치. 실전 학습은 굉장히 강력하다.

첫 컨택부터 최종 결과 발표까지 짧으면 7일, 길면 20일.

일반적으로는 PS - CS - Tech - Culture/Fit. 간혹 System Design.

QUESTIONS

솔직히 별로 해 줄 말이 없다. 전부 나를 위한 질문들 뿐이었다.

굳이 노력한 부분을 찾는다면,

선택의 여지가 있는 모든 요소들에서 고민의 흔적을 보이려고 했다.

고민한 적이 없다면 그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추측하기라도 했다.

그리고, 과장하거나 부풀리거나 팀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고 했다.

QUESTIONS

"당신이 당신 팀을 더 좋게 만들었는가?"

QUESTIONS

"본인이 하신 대표적인 업무를 한 두 개 설명해주세요."

"왜 Webflux와 MongoDB를 쓰셨나요"

"왜 샌드박스 환경의 Database를 이중화했나요"

"데이터는 어떤 구조로 저장했고 왜 그렇게 했나요"

*S.T.A.R Framework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NEGOTIATION

CASE 1. "합격입니다! 연봉이 얼마인가요?" → "X원입니다"

→ "Y원 어떠세요" → "흠"

CASE 2. "합격입니다! 연봉은 어떻게 되시고 얼마를 원하시나요?"

→ "X원이고 Z원 희망합니다" → "Y원 어떠세요" → "흠"

만약 두 군데 이상 합격했으면, 단가가 비슷할 경우 이간질 가능.

그러나 얼굴 붉히지는 말자. 다 내일모레 다시 볼 사람들.

WHAT DO THE MOVE MEANS

WHAT I LEARNED

사람이 중요한가? 그렇다. 사람이 중요한가? 진짜 그렇다.

이직하기 좋은 시기인가? 그렇다. 그러나 온갖 조건을 붙혔을 때.

신입으로 취업할 때랑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 반수하는 기분이다.

다른 곳에 가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다 떨어지면 그냥 다니지 뭐"라는 생각을 깨끗이 필터링하기가 어려웠다.

RECOMMENDED RESOURCES

- 스타트업으로 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좋은 스타트업의 기준
- 링크드인에서 모든 1촌 요청을 수락해야 하는 이유 (댓글에 반박도 있음)
- 개발자 면접 멘토링 소개글 (지금도 하시는지는 모름)
- 구글에 지원하기 전 읽어보면 좋은 테크 인터뷰 종합 가이드북
- 사실상 이 이력서를 그냥 베꼈습니다
- 시스템 디자인을 맛보기에 정말 좋은 책. 핵심은 '질문'입니다!
- 멍 때리면서 읽는 유명 IT 회사 리스트 (짧음)